

제 16 호

사순절 제 2 주일

1973. 3. 18

# 숲 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인사말씀】



## 주교서품을 받으며

김 재 덕 주 교

### PER QUEM OMNIA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토 전서 8:6)  
 경애하올 본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지난 2월 10일 로마 교황청은 이 미려한 본인을 전주 교구 제5대 교구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오직, 성신의 감도하심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조만을 믿고 본인은 이에 순명하였습니다.

촌각(寸刻)을 다투어 격변(激變)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때처럼 막중한 시기도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항상 진리의 소리에 귀기울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어, 마음을 다하여 생활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간단한 일처럼 들리기 쉬우나, 이처럼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해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도 본교구는 1931년에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 교구로 설정되었습니다. 그간 김양홍 신부님, 주재용 신부님, 김현배 주교님, 한공렬 대주교님을 교구장으로 모시고 쏟아 놓은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가 오늘 본교구에 31개의 본당과 218개의 공소에 5만여 신자를 있게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맥맥히 흐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협조로 하느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더욱 번성할 수 있기를 빕니다.

더욱 기쁜 일은 본교구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고 조직적인 이 움직임을 본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백성다움에 생동하는 평신도 사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찬 활동으로 본인을 도와 하느님 사업의 일익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열성어린 협조를 당부합니다. 오직 그것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장

+ Rev. *Kim Jaeduk*

###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이 내 마음 당신께 아뢰옵고, 이 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 **독서** (로마서 8:31-34, 성서 p 353)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 **창세기** © 나는 거닐으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으리라. 「모진 고생」을 너면사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가룩할 쓴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며

□ **복음 전 노래** 빛나는 구름을 헤치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하시도다.

□ **복음** (마르코 9:1-9, 성서 p 95)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 □ 신자들의 기도

1. 당신 백성을 관후하심으로 가르치시는 천주여, 우리의 목자 김아우구스떼노 주교를 위하여 비오니, 그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지혜의 성신이며, 우리의 목자 김아우구스떼노 주교를 진리의 빛으로 항상 인도주소서. ◎

3. 당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천주여, 우리의 목자 김아우구스떼노 주교에게 건강을 주소서. ◎

### ■ 맺음 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시요 임금이신 천주여, 친히 주의 일꾼 김아우구스떼노를 성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우 굿어 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다가 마침내 맡겨진 양무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영성체송**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이 주간 성경 ※

- 19 (월) ◎ 성 요셉 축일  
 독서(로마서 4:13.16-18.22, 성서 P. 345)  
 복음(마태오 1:16.18-21, 24, 성서 P. 1)
- 20 (화) 독서(로마서 9:6-13, 성서 P. 354)  
 복음(마태오 23:1-12, 성서 P. 55)
- 21 (수) 독서(로마서 9:14-18, 성서 P. 354)  
 복음(마태오 20:17-28, 성서 P. 47)
- 22 (목) 독서(로마서 9:19-29, 성서 P. 355)  
 복음(루 가 16:19-31, 성서 P. 175)
- 23 (금) ※ 금육의 날  
 독서(로마서 9:30-33, 성서 P. 356)  
 복음(마태오 21:33-43, 45-46, 성서 P. 51)
- 24 (토) ◎ 성모 영보 축일  
 독서(하브리 10:4-10, 성서 P. 510)  
 복음(루 가 1:26-38, 성서 P. 122)

□ 성성식 □

❖ 안내 말씀 ❖

1. 입장권 발행

장내 정리상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어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입장

장내 질서 유지상 어린이 입장은 불허하오니 양지하시어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진 촬영

장내 질서 유지상 사진 촬영을 제한하오니 사전에 허가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사목협의회 총무처)

1973. 3.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협의회

회장 송 영 선

❖ 일 정 ❖

서품 및 착좌식

때 : 1973. 3. 19 (월) 오전 11시

곳 : 전 주 중앙 천주교회

축하식

때 : 1973. 3. 19 (월) 오전 12시

곳 : 전 주 중앙 천주교회

축하연

때 : 1973. 3. 19 (월) 오후 1시

곳 : 전 주 가톨릭 센터

❖ 진행 부서 ❖

위원장~송 영 선 (사목 협의회 회장)

준비 위원

고광하, 김규승, 김봉호, 김상린, 김정기, 김종순, 김진석, 송영기, 양한승, 유희진, 육낙철, 이동근, 이동열, 이법상, 이상용, 이태영, 정춘조, 조성호, 조해형, 황인담, 각 본당 사도회장단 (가나다순)

총 무~한 상 갑 (사목 협의회 총무처장)

식 장 준 비~양 학 도 의 8명

성당 입장 안내~이 영 회 의 8명

장내 정리 안내~이 경 호 의 8명

성당 구내 정리 안내~이 순 화 의 8명

축하연 연회장 안내~김 재 열 의 8명

내빈 숙소 안내~김 상 철 의 8명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중앙성당 옆 (☎ 7398)

□ 양지쪽 □



약속의 말씀도

누구나 음식점을 찾을 때에는 즐거운 기대를 갖게 된다. 창자가 맞닿아 당하는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든지, 오랫동안 가족끼리 즐기는 의식이든지, 다정한 사람들끼리의 조촐한 회식이든지 모두가 다 그렇다. 한때 두가지의 예외가 있다. 기차 시간은 급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빨리 된다면 음식이 더디게 나오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맛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음식에 손이 자주 가지 못하는 경우가 그 두번째이다. 두가지 모두 손님과 주인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때의 상황이 어떻든, 비록 80원짜리 짜장면을 주문했다라도 손님과 주인의 대화는 분명히 거래 이전에 하나의 약속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대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자라왔다. 시장에 가는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거나, 의갓집에 가는 엄마를 따라 나서겠다고 버둥대다가는 엄마의 사탕 약속에 슬그머니 몰려서 본 경험이 많을 것이다. 현태 섭섭하게도 그런 약속은 대개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면 커가면서 어른들이 약속하게 느껴지고, 철이 들면서 부터는 자기만은 약속을 지켜 보겠노라는 결심까지도 갖게 된다. 하지만 어디 그것이 뜻대로 되는가? 그런 생활의 연속은 마침내 묘한 유행가의 가사를 낳게 했다.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보편적으로 유행가의 가사말들은 그 시대의 풍경을 그려내는데 적당하다.

사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테도 그 약속을 정말로 너무나 잘 지킨 사람들이 많다. 가까이 도산 안창호 선생만 하더라도 그렇다. 한 어린아이와의 약속때문에 당산의 생명까지도 버린 그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이는 분명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 재미있는(?) 유행가의 가사도 그렇다.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면서 중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눈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은 저 멀리 저 멀리서 무지개 타고 오네.」-바로 그것이다. 무지개 타고 오는 그 사람의 존재인 것이다.

당신은 이 사순절에 당신의 하느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가? 당신은 그 노래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인가, 아니면 「무지개 타고 오는 그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드리는가? (갑)

❖ 이전안내 ❖

등산용구 일체 취급

요셉 산악 센터

교우에게 특별 할인

전등 3가 명산 약국 앞

김 대 원 (요셉)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 (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학의 광장 \*

● 잔디밭 ●

### 공짜는 다 양젓물?



박진량 신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힘들여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지성인을 위한 가톨릭 교리교실」이다. 신자나 예비신자에게 주 예수님의 뱃세지를 오늘날의 시대감각에 알맞도록 제시해 보자고 해서 생긴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교리반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사오명, 아니면 기껏해야 십여명이니 허전하기 짝이 없다. 여러사람이 권유했고 나도 좋은 아이더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교리반을 시작한 것인데... 「나는 무던히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본당 교리반에 나가는 사람이나 성경교실에 나가는 사람들보고 이 교리교실에 나와달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미사에만 나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현대감각에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는 신자와 현대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톨릭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지성인 예비신자들이 교실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나오는 사람이 없을까?

잠깐! 교리교사인 나의 잘못일까? 내가 너무나 성의 없이 가르쳐서 그랬을까? 강의내용을 프린트까지 해서 나누어 주었고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이 언제나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혹시 너무나 못알아듣게 어렵게 가르쳤나? 지성인들에게라면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틀린교리, 이단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신의 감도를 따라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강의내용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었으니까 지적해 주기가 께 쉬웠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말도 듣지 못했으니.....

혹시 교리교실에서는 돈을 달라고 한적이 없기 때문에 공짜라면 양젓물도 큰 것을 움켜쥘다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그것이 극도로 발전하여 「공짜는 다 양젓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모두가 너무나 바쁜 탓일까? 그렇지, 모두가 새마을 사업, 유신사업, 백억불 수출사업, 돈벌기 사업에 여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보니

「나는 무던히도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언젠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마태. 22장 1~14절)가 생각난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밖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가톨릭 센터 관장 신부-



### \* 방송 안내 \*

김 주교님 인터뷰	K.B.S. 방송	16(금) 오후 10:30-10:45
	S,B,C 방송	17(토) 오후 4:10-4:20
		18(일) 오후 4:40-5:00
	M.B.C 텔레비전	18(일) 오전 7:40-8:00
	방송	18(일) 오전 8:10-8:50
종교시간	K.B.S. 방송	25(일) 오전 6:05-6:15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③3498)

19 (월) 외국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22 (목)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20 (화) 젊은이의 광장-유장훈 신부 지도	" (불어, 오후 5~6시)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23 (금)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독어<A>, 오후 4:30-5:30)	" (독어<A>, 오후 4:30-5:30)

### ✧교우들의 전망✧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통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발전\*

### 동남 샵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②5504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소

김재덕 주교님 서품 및 착좌식 3월 19일 오전 11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주례로 김주교님의 서품 및 착좌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시

오셉 신부님들의 영명축일(3월19일)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남호(화산 본당 주임신부), 김중택(덕진본당 주임신부), 안복진(중앙본당 주임신부), 배영근(교구청 주재신부), 유장훈(성심여중·고 종교감신부) 고 이태규 신부님 4주기 연도(3월 23일) 고 이태규(오셉) 신부님의 4주기 위령미사가 3월 23일 오후 7시에 복자성당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는 복자성당에 모여서 신부님 묘소를 참배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주교님 서품식 입장권  
서품식 참석 희망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29,057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피미시움 회합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2. 고 이태규 신부님 4주기  
본당 신부님이시었던 이신부님을 위한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① 묘소 참배 23일 오전 10시 성당 집합  
② 위령 미사 23일 오후 8시  
 성미 (6말 2되 5홉), 누제 108말 3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217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3. 주일학교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간 엄수 요망)
4. 유아 영세 (토요일 오후 5시)  
학생회 봉헌금 (750원), 주일학교 봉헌금 (37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2,734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불 판공 성사 공소 일정  
3월 21일-의암, 마치 22일-서당리, 내정, 목재  
23일-신흥, 백암리 29일-내어두리  
30일-외어두리, 석장리 31일-신리
2. 주교님 성성식  
물심 양면으로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오늘 공식 미사후)  
신부님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3. 부녀부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4. 블랙시디움 회합 시간 변경  
하늘의 문(학생) - 주일 오전 9시
5. 교무금 납부 요망  
재정 궁핍으로 본당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7,291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피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유치원)
2. 부활절 영세자 특별 교리  
① 요일-매주 화. 수. 목. 금요일  
② 시간 일반 예비자 (오전 10시)  
직장 예비자 (오후 8시)  
 애령회 특별 헌금 7,927원  
지난 주일 봉헌금 28,628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누계 5,888,300원

남원 누계 50,000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65,000원

서학동 누계 327,800원

김테레사 (1만원), 이종환 (3천원)

전동 누계 1,715,000원 중앙 누계 2,480,500원

진북 2구 김경주(2만원), 박대규, 이기호, 이현기 (각 1만원)

경원 김경철(3만원)

중노 이남순(5천원), 이성녀(2천원)

서노 차판례(5천원), 정전모(2천5백원)

진북 1구 이은님(1만원), 김철수, 윤갑순(각5천원)

아크릴, 페인트, 간판제작, 실크투수인쇄  
페난트, 전주광고

월세계 광고사

(교우에게 특별 할인)

대표 이상신(바오로)

전주극장 동편 전화 ㉠ 6109  
7447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옆 (전화 ㉠2212 ㉠7071)

김병구(빈첸시오)